

# 개인보호구 · 성실한 안전교육 중소건설현장 무재해의 원천

##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부산해운대 the# 센텀스타 현장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문화관광 도시, 따뜻한 남쪽나라 부산.....

최근 다양한 국제 이벤트로 세계 속의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부산, 그 중 세계 G7 정상들 발길마저 잡은 센텀시티에 또 하나의 명물이 꿈틀된다. 국내 RC조로는 최고층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탄생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탑상형 구조를 탈피하고 High-Tech 이미지의 초고층 구조건축물로 주거성, 기능성 면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공법과 선진기술을 적용시키며, 부산의 명물을 만들고 있는 곳은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 the# 센텀스타 현장(신승식 현장소장)”이다.

신공법, 선진기술로 태어나는 이곳은 어느 한

부분이 특출 나지 않은, 안전을 더불어 공사, 품질, 환경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고의 건축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근원적인 안전은 시공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

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은 착공과 더불어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설계로 시공성, 기술 등 모든 것이 반영되는데, 안전시공도 여기서 결정된다.

공법 선정에 있어서도 추락재해 등 재래형 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는데, 이 곳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것이 ACS 품을 전체 면적에 적용하고, 조립식 거푸집 시스템으로 재래식 콘크리트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





▲ 신 승 식 현장소장

안전은 안전관리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현장의 주인은 근로자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입니다. 황금돼지해! 안전과 무재해라는 복중에 가장 소중한 복도 우리 모두 함께 받을 것입니다.

요인을 완전 봉쇄한다. 안전난간대 설치에 있어서도 3중 안전이 이상적이다. 난간대를 설치할 때 안쪽에는 수직망으로 추락을 방지하고, 밖에는 접이식 낙하물방지망이 설치된다. 이런 센텀스타 현장은 위험요소가 비집고 나올 만한 틈새 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 현장소장의 의지가 스며든 현장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현장소장의 의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안전관리자가 스텝으로 아무리 잘해도 소장의 의지가 없다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곳현장에 첫발을 내딛고 현장 곳곳 어디에 가도 흐트러진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정돈된 모습이다. 최고층 슬라브 현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각종 번팀대와 자재로 어수선했던 것이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모습이었는데, 이 곳 현장은 다른 현장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번팀대는 잘 정돈된 정원의 나무 같았고, 올라가는 계단 또한 이렇게 청결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케 한다.

현장을 총 지휘하는 신승식 소장은 함께하는 안전, 그리고 사전 단계에서부터의 안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실명제로 직원 1인당 현장 근로자 20~30명을 전담 관리하는 안전담당제가 그 대표적이다. 그리고 안전보건협의회에서 협력사 사장을 필히 참석시켜 내실화를 꾀한 것도 안전은 관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신승식 소장의 안전 마인드에서 베어나온 것이다.

이렇듯 신승식 소장의 안전 마인드는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부산의 명물을 안전시공과 함께 무재해 준공으로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다.

### 입체적 안전활동으로 무재해 준공을 향해

안전이 선행되지 않는 시공은 부실시공의 원인이고, 산업재해 발생의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센텀스타 현장 사람들은 안전제일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안전활동이 전개한다.

안전담당제에 의해 병행 시행되는 “Real-Time 안전순찰”도 전 직원이 발품을 팔아야만 할 수 있고, 근로자, 협력사, 전 직원이 의식을 변화시켜, 자발적인 점검, 기계기구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무재해를 이룩하는 “ANCHOR 운동”도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이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안전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0×퀴즈”,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지루하기 쉬운 국민체조 대신 “기체조 및 건강증진 체조”, 올바른 T.B.M 활동 정착을 위한 “T.B.M 활동 경



진대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근로자를 안전과 밀착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신승식 소장은 “현장 기술자들이 그동안 기술적인 업무만 했고, 관리적 업무는 소홀히 했었습니다. 건설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의 하이테크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며, 이것이 뒷받침 될 때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전은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처럼 입체적인 안전활동으로 센텀스타현장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

부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는 무사고 무재해 공사를 함에 있어 외형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살기 좋은 건축물 등 여러 수식어들이 붙는다. 그 중 센텀스타 현장 사람들은 무재해 준공이

라는 수식어를 가장 듣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골조공사 위주의 작업이었다면, 앞으로 외장공사, 마감공사, 복합공정 등 전공이 투입되고, 투입인원도 800명으로 안전 작업 지역 및 근로자 수가 늘어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나 실시간 안전관리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재산정하는 집중관리 등 모든 안전 활동을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재정립하여 무사고, 무재해를 이룰 것이다.

이처럼 앞에서 무재해 준공을 향해 끌고 뒤에서 미는 수레바퀴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출발하는 2007년, 분명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종덕 기자〉